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은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

김 혁 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다그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웅적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1970년대처럼 사상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법적투쟁은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준수집행정형에 대한 료해장악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 등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기관들의 활동이다.

정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이 배합작전을 치밀하게 잘하고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적투쟁은 순수 법질서확립을 위한 통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교양개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다.

사상전의 내용을 이루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주로 해설과 설복, 비판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고쳐주는것이라면 법적투쟁은 국가적의무를 무조건 집행할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법위반행위의 엄중성과 해독성을 인식시키

고 법위반자들을 교양개조한다.

법적투쟁이 교양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착취계급국가의 법과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의 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담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의 요구속에서 살며 행동하고 이러한 법의 통제를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혁명적인 교양을 받기마련이다.

사회주의국가의 법적투쟁은 이처럼 교양적성격을 내포하는 국가의 권력적활동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이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로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규률있고 질서있게 행동할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강한 규률과 혁명적질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교양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은 엄격한 규률속에서 혁명적인 사상과 의지를 키우며 강의한 품성과 단정한 품모, 건전한 습관을 기울수 있다.

력사적교훈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지 못하면 부르쵸아사상과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비롯한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가 내부에 침습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

법적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정연하고도 엄격한 체계와 질서, 혁명적규률과 생활기풍이 세워지도록 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온갖 낡은 사상과 불건전한 요소들이 머리를 쳐들고 발붙일수 없게 한다.

경험은 법적투쟁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온갖 범위반현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릴 때 온 사회에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낡은 사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들어선 오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를 흥정하려고 하는 현상,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음으로 양으로 훼손시키는 현상, 당적, 계급적원

칙에서 탈선하여 우리 내부에 쉬를 쓸게 하는 요소들과 같은 반당적요소들과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고 즉시 집행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와 같은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에 강한 법적투쟁을 따라세울 때만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전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국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 노동행정질서, 교통질서, 사회공중질서 등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법규범과 규정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질서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법적투쟁을 강화할 때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이 확립되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세워지고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다.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이 그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오늘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힘있는 수단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상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상사업을 홀시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을 놓치는것이며 이것은 필연코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가게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우리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적들의 이러한 책동은 바로 사상문화적공

세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의식, 우리 체도에 대한 불만, 색정과 부화방탕을 조장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변질와해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사상전은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제압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색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는 공격전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맹아단계에서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사상공세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서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사상의 대결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사회주의사상의 위력은 사회주의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과 생활양식, 생활풍조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발휘된다.

낡고 반동적인 사상독소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은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당과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기 위

한 사상전을 일관하게 전개하여왔으며 온갖 위법현상에 대한 법적투쟁을 적극 벌리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검질기고 집요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도 끄떡없이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경보루로 우뚝 솟아올랐다.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를 좀먹고 해치는 위법현상들을 철저히 뿌리빼고 맹아단계에서 짓뭇개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범위반자들을 철저히 조사, 적발하여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생활풍조가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전의 성과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된다.

이처럼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우는것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전의 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모든 법기관들과 일군들은 사상전에 법적투쟁을 따라세울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똑똑히 인식하고 법적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